2021학년도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사회계>

2020.12.6.(일) 오전 실시

경희대학교 입학처

1.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사회 갈등은 구성원 간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로 간의 자발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론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담론 윤리의 대표적 연구자인 하버마스(Habermas)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올바른 대화의 기준으로,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성실히 지킬 것을 믿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담론을 통해 우리는 보편적 도덕 규범에 합의할 수 있고, 그 도덕 규범에 따라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으며 사회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담론 윤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는 이들의 자유로운 담론 교환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 규범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를 지향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에 이를 수 있다.

[나]

통일은 기적처럼, 또는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질서 있는 통일 과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동독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독 주민들과 같은 사회적 권리(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실업 수당, 공공 부조 등)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의 붕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주로 서독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동독과 서독의 통합 방식은 대부분 일방적이었다. 서독이 거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일 과정을 조율하고 이끌었다. 따라서 동독인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서독인과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인에게 전쟁의 저주와 고통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동독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동독 지역은 서독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서 비롯되는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을 코앞에 둔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연금 개혁에 참여한 한 국회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의 상향 조정은 현재 청년 실업 등을 겪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라며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노년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년층도 언젠가는 노년층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제도로 인한 혜택을 전 세대가 고루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지만, 이 방안이 국가 통합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

* 소득 대체율: 본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라]

단층선 분쟁은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국가나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이다. 단층선 분쟁은 폭력을 동반한 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이 전쟁은 나라들 사이에서, 비정부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나라와 비정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라 안의 단층선 분쟁은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지역에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집단들 간에 벌어지는 충돌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와 화교처럼 지속적인 긴장 관계가 폭력으로 분출되거나, 신생국이 들어서면서 국경선이 확정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시도가 강행되어 전면전으로 치닫기도 한다. 단층선 분쟁은 때로는 주민들을 장악하려는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개는 영토 분쟁의 양상을 띤다. 당사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 진영의 목표는 그 지역의 통합을 위해 영토를 점령한 뒤 다른 진영 사람들을 내쫓거나 죽이거나 둘 다를 감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민족 청소'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다른 진영 사람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갈등을 빚는 영토는 한 진영에게 또는 양 진영 모두에게 자신들의 역사나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고도의 상징성이 깃든 지역이다. 그 성스러운 땅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그들은 믿는다. 요르단 강 서안, 캐슈미르, 나고르노-카라바흐 드리나 계곡, 코소보가 그런 곳들이다.

[마]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으로 불리는 북촌도 관광 명소로 주목받으며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비켜갈 수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관광객 안내소 건립에 대해 "북촌 고유의 모습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자체와 다른 주민들은 적극적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내소는 계획대로 건립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주무 기관인 구청과 건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일방적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구청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정 방식을 탈피했다. 주민 정서와 의견을 반영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다. 전문가 설명회, 주민 간담회, 지역 단체 회의 등 주민들과의 대화가 여러 차례 열렸다. 그 결과 설계안이 변경됐고, 완공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통합한 최종안이 나왔고, 일부 반대 의견은 잦아들었다. 한 주민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모두 최종 합의에 따라주었다."라며 "상호 합의한 뒤에는 추가 이견 없이 안내소 건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바]

유럽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유럽 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유럽의 다양한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통용된다. 서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등 대규모 민족 간 전쟁으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20세기 중반은 평화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사상적 조류가 강한 시기였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유럽 전역에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고 유럽 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보조 아래 추진되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유럽에서는 국민국가 간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졌고, 20세기에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 대전 등 전쟁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을 딛고 장기적인 평화가 가능하였던 것은 유럽 통합의 제도적 형식을 취한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제도화된 협력이 양국에게 평화 공존과 경제 번영이라는 혜택을 가져왔다면, 주변의 크고 작은 국가에게도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자국의 정책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야 하였던 베네룩스 3국이 유럽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이 27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오랜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로 작은 분야부터 통합을 시도하여 마침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언제나 적대가 종횡으로 교차한다. 이곳에는 각 진영이 자신의 관점을 활발하게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헤게모니*적 기획들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을 사회 발전의 장애로 보고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의 갈등이 필요하다. 갈등을 혐오하면서 조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불만을 야기할 뿐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서로 논쟁하기를 권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생동감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경합'이 필요하다. 적대적 진영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상대 진영의 싸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적대 진영을 싸움의 상대로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활발한 의견 대립을 펼치는 '경합적 투쟁'이 요구된다. 통합을 통해 완벽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반대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 헤게모니: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

[논제 Ⅰ]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배점 30점]

[논제 Ⅱ]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Ⅲ]

H구청은 관광객 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한다. H구청은 1번부터 6번까지의 안내소 위치를 제안하였고, 구민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H구에서는 안내소 위치를 둘러싼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H구의 갈등지수는 안내소 위치에 대한 구민들 간의 갈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실수이다. 갈등지수가 0이면 구민들 간 대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커질수록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H구의 갈등지수를 x라 하고,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을 y라 하자. 간담회 참여율은 갈등지수의 함수이며, 갈등지수가 1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은 27%이다.

간담회 참여율 함수의 도함수(y')는 일차함수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ㄱ) 갈등지수가 3.7일 경우, 도함수의 값은 5번 제안이 탈락되었을 때 1번, 3번, 6번 중 하나가 선택될 확률이다. (단, 각 제안이 선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ㄴ) 도함수의 x절편 값은 4이다.

(1)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 함수를 구하고, 이를 X-Y평면을 이용하여 닫힌구간 [0, 10]에 대해 x절편, y절편 값을 표시하여 그리시오.

(2) 갈등지수가 5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을 구하고, 그 결과 값과 (1)에서 구한 x절편, y절편 값을 이용하여 제시문 [사]의 관점을 평가하시오.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0점]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Ⅰ]

제시문 [가]~[바]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가], [마], [바]는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반면, [나], [다], [라]는 통합이 강제나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가]는 사회 통합을 위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마]는 북촌 안내소 건립이 주무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건립된 사례를 보여준다. [바]는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반면, [나]는 준비 없이 시작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 주도의 일방적 국가 통합 방식을 보여준다. [다]는 국가가 국민 연금과 관련된 세대 갈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라]는 단층선 분쟁에서 흔히 목격되는 강제적 민족 통합의 양상을 묘사한다. (487자)

[논제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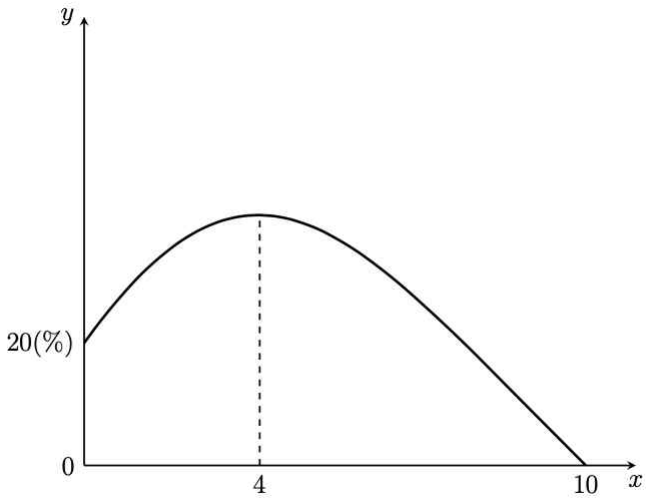
제시문 [사]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갈등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보지 않고,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전제를 토대로 반대 진영의 의견 표출 권리를 상호 인정하고, 활발하게 의견 표출과 대립에 나서는 '경합적 투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동적 사회를 위해서는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지역 내 소수 민족을 폭력을 통해 강제 통합한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이런 통합을 통해 민족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 의견이 계속 표출되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갈등 상대의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조차 처음부터 봉쇄했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비판받을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 소통을 통해 해결한 지역사회 통합의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합의에 의한 통합에 의해서도 갈등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갈등 상대에 대한 인정과 일시적 의견 교환이 허용되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 갈등 표출과 대립의 기회가 봉합돼 버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656자)

[논제 Ⅲ]

(1) 6개의 제안 중 5번이 탈락되는 사건을 A, 1번, 3번, 또는 6번이 선택될 사건을 B라 하자. 이때 도함수 조건 (ㄱ)을 만족하는 확률 값은 $\mathrm{P(B|A)}=\frac{\mathrm{P(A\cap B)}}{\mathrm{P(A)}}=\frac{3/6}{5/6}=0.6$이다. 따라서 도함수는 갈등지수가 3.7일 경우 0.6의 값을 갖고, x절편 값이 4이므로, $y'=-2x+8$가 된다. 따라서 닫힌구간 [0, 10]에 대한 간담회 참여율 함수 $y=\int(-2x+8)dx=-x^2+8x+C$로 나타낼 수 있다. 갈등지수가 1일 경우 간담회 참여율이 27%이므로 $y=-x^2+8x+20$이 되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갈등지수가 5일 경우 H구 구민의 간담회 참여율 값은 35%이다. 이때의 간담회 참여율은 갈등지수가 0일 경우의 20%(y절편)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정도의 집단 내 갈등 상승이 간담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갈등을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시문 [사]의 관점과 부합한다. 반면, 갈등지수가 매우 높은 구간에서는 간담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갈등지수가 10(x절편)에 가까울 때에는 간담회 참여율이 0%에 가깝다. 이 경우에는 제시문 [사]의 관점과 달리 갈등이 사회 참여의 장애로 작용하므로, 대립을 해결하여 갈등지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3.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① 만점 : 논제 당 100점(3논제 도합 300점)
② 기본 점수 : 논제 당 60점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논제 Ⅰ> (401~500자)
2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6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Ⅱ>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Ⅲ>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바]는 공통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이루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 [마], [바]는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나], [다], [라]는 통합이 강제 또는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 [마], [바](협력적, 합의에 의한 통합)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③ 제시문 [나], [다], [라](일방적, 강제에 의한 통합)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표현력 등)

2) <논제 Ⅱ>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갈등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
- 갈등 상대의 의견 표출 권리를 인정하고, 활발하게 의견 대립에 나서는 '경합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

②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라]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소수 민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은 강제 통합에 의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소수 민족의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가 처음부터 봉쇄됐다는 점

③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마]의 장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아래 내용 참조)

- 지역사회에서 주민 간 갈등은 소통과 합의에 의한 통합으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반대 의견에 대한 인정과 일시적 의견 교환이 허락됐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 갈등 표출과 대립의 기회가 봉합됐다는 점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표현력, 창의력) 가점

3)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ㄱ)조건을 만족시키는 도함수 값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5점 가점

②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도함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도출했으면 5점 가점

③ 도출한 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정확하게 도출했으면 10점 가점

④ 도출한 함수의 그래프를 두 절편 값을 표시하여 정확하게 그렸으면 5점 가점

⑤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간담회 참여율 값을 정확하게 구하고, 함수의 y절편 값을 이용하여 제시문 [사]의 관점이 타당함을 서술하였으면 10점 가점

⑥ 함수의 x절편 값을 이용하여 일부 상황에서 제시문 [사]의 관점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면 5점 가점

[제시문 출처]

[가] 변순용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pp. 188-189. (재구성과 윤문); 차우규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p. 190. (재구성)

[나] 정창우 외 (2018),『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p. 202. (재구성과 윤문)

[다] 변순용 외 (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p. 187. (재구성과 윤문); 신형민 외 (2018), 『고등학교 사회 문화』, 비상교육, pp. 152-153. (재구성)

[라] 새뮤엘 헌팅턴 저, 이희재 역 (1996), 『문명의 충돌』, 김영사, pp. 342-343. (재구성과 윤문); 정창우 외 (2018),『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미래엔, p. 205.

[마] 한국행정연구원 (2016), 『공정사회와 갈등관리(V):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 6. (재구성과 윤문); 서범석 외 (2019),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pp. 85-88. (재구성)

[바] 조홍식 (2006),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푸른길, pp. 58-59; 이병인 외 (2018),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pp. 204-205. (재구성)

[사] 샹탈 무페 저, 서정연 역 (2020), 『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난장, pp. 38-39. p. 130. (재구성과 윤문)

4.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오전) 논술고사의 주제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사회 갈등과 통합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이다. 이 문제를 통해 협력적이고 합의에 의한 통합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은 어떤 방식의 통합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동적 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과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특히 사회 갈등 해결과 통합에 관한 제시문 구성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중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나타난 내용을 발췌했으며, 이 주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지문으로 사용하거나 재구성했다.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및 윤문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188-189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금성출판사	2018	190	제시문 [가]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02	제시문 [나]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8	187	제시문 [다]	O
고등학교 사회 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152-153	제시문 [다]	O
문명의 충돌	새뮤엘 헌팅턴 저, 이희재 역	김영사	1996	342-343	제시문 [라]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05	제시문 [라]	O
공정사회와 갈등관리(V):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16	6	제시문 [마]	O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19	85-88	제시문 [마]	O
유럽 통합과 민족의 미래	조홍식	푸른길	2006	58-59	제시문 [바]	O
고등학교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18	204-205	제시문 [바]	O
경합들: 갈등과 적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샹탈 무페 저, 서정연 역	난장	2020	38-39, 130	제시문 [사]	O

* 재구성 및 윤문은 지문의 논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충실했던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취지로 이루어졌음.

5.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을 위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다. [나]는 준비 없이 시작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 주도의 일방적 국가 통합 방식을 보여준다. [다]는 국가가 국민 연금과 관련된 세대 갈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사례를 보여준다. [라]는 단층선 분쟁에서 흔히 목격되는 강제적 민족 통합의 양상을 묘사한다.[마]는 북촌 안내소 건립이 주무기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건립된 사례를 보여준다. [바]는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겪었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사]는 사회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 보지 않고, 역동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작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논제 I]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달성하는 두 가지 방식, 즉 협력적이고 합의에 의한 통합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방식은 통합이 참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 방식은 통합이 강제나 어느 한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협력적이고 합의적인 통합 방식과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 II]는 활발한 반대 의견 표출과 지속적 경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 [사]가 앞선 제시문들과 달리 갈등이 해결 불가능하며 역동적 사회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가 통합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지며, 동시에 강제와 합의라는 통합 방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수민족의 강제 통합은 완벽한 갈등 해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수 민족의 반대 의견 표출 권리는 물론 실질적 의견 표출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에 대한 인정과 소통이 일시적으로 허락됐지만,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논제 III]은 고등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 및 수학 II 교과과정에 나오는 함수, 조건부 확률, 도함수 및 부정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을 수식 및 그래프로 표현하고, 논제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수험생들은 문제 풀이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사회 갈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통합으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추론해야 한다.